

# 벼알 여무는 기간 수확일도 기온 따라

### 농진청, “이삭 패는 날·재배 지역 기온 고려 수확 적기 지켜야” 당부

농진청(청장 허태웅)은 벼알이 여무는 기간의 기온에 따라 수확일이 달라지므로, 이삭 패는 날과 재배 지역의 기온을 고려해 수확 적기를 지켜 달라고 27일 당부했다.

이삭이 나온 후 등숙기(여름기) 동안의 평균 적정 기온은 21도~23도 사이이다. 이보다 기온이 높으면 벼알이 빨리 여물어 재배 수확하지 못하고, 비를 맞을 경우 수발아(이삭싸키) 피해가 증가한다. 등숙기 평균 기온에 따른 수확 가능 시기는 ▲28도 이상은

이삭이 낀 후 45~50일 ▲25도 이상은 50~55일 ▲21~23도는 55~60일이다.

농진청이 지난 2018년과 2020년에 수행한 등숙기 환경조건에 따른 수발아 발생 연구에 따르면, 등숙기에 기온이 높아지면 쌀 품질이 떨어지고 수발아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삭이 나온 후 등숙기 동안 평균 기온이 적정 수준(21~23도)보다 높을수록 전립중, 도정률, 완전미율이 감소했으며, 단백질 함량이 증가해 밥맛도

떨어졌다. 등숙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황숙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단축돼 수확 가능 시기가 빨라지며, 비를 맞으면 수발아 발생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발아가 되면 불투명한 종실이 증가하고 잘 부스러지며 도정률도 감소하기 때문에 출수와 여무는 기간 기온을 확인하고 재배 빠르게 수확해야 한다.

전주 지역을 기준으로 7월 10~15일(조생), 8월 1~5일(중생), 8월 10~15일(중만생)에 이삭이 낀 경우 각각 약

9월 3~8일, 9월 22~27일, 10월 8일~13일 이후가 수확 가능한 시기다. 농가별 영농 시기에 해당하는 벼알 여무는 기간의 평균 기온은 기상청 날씨누리(weather.go.kr/w/obs-climate/land-past-dbs/obs-by-day.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진청청장 작물재배생리과 장재기 과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이상 기상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작물을 안정성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최창수 NH농협손보 대표 전북 우박 피해현장 점검

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지난 24일 최근 갑작스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벼 농가와 과수 농가를 방문해 농작물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농가를 위로했다.

이번 피해 현장 방문은 지난 22일 전북 일부 내륙지역에서 발생한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전북지역은 28일 기준 99농가, 286ha의 우박 피해가 접수됐다.

이날 최 대표는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농가의 경영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 담당자들의 신속한 사고 조사 등을 당부했다. 또한 전북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을 만나 농·축협과의 상생 발전과 농업인들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창수 대표는 “최근 벼 병충해, 과수 우박피해 등 연속된 자연재해로 본격적인 수확 시기에 많은 농가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직면했다”며 “농협손해보험은 농업인의 피해복구와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지난 24일 최근 갑작스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벼 농가와 과수 농가를 방문해 농작물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농가를 위로했다.

## 고용유지지원금 이용 중기 61.6% “인력 활용 애로”

### 63.7% “한국형 PPP 제도 도입 필요” 응답

현행제도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업들은 인력 활용에 등 인력 활용에 애로가 있어, 휴업·휴직 없이 고용유지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현장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17일까지 코로나 확산 이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61.6%에 달해 현행 제도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실시

야 하는 등 인력 활용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였던 기업들 중에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지원기간이 만료되어서(35.7%, 1위)’라고 응답하며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 2위)’라는 응답이 뒤를 이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서 휴업·휴직 없이 고용유지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PPP(Psychic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7%를 차지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원기간 연장(28.4%)’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다.

정부가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8.4%를 차지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현장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애쓰는 곳들”이라며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 화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기피토록 만들어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상 기자

## 하이트진로, 어르신 등 대상 이동차량 기증 이어가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대를 위해 총 6대의 차량을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한다고 27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차량을 기증할 사회복지기관 선정을 위해 27일 모집안내문을 하이트진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2월 중 선정 기관을 발표한다.

하이트진로는 기존 이동차량이 승합차라 좁은 길이 많은 취약계층 주거지역에서의 이동이 제한적인 것에 주목하고, 2015년부터 소형 이동차량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까지 7년간 총 44대의 차량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하이트진로가 지원하는 차량은 기어자동차 레어로,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용 특수개조차량 1대와 일반차량 5대이다. 기증한 차량들은 목거노인 및 재가장애인 도시락 배달, 병원 이동 및 송영서비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코로나 19로 인해 이동과 접근성이 더욱 취약해진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올해도 이동차량 지원사업을 이어가게 됐다”면서, “100년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주변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활동을 이어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차량은 다가오는 10월 국내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과 연계해 선수들의 우승 상금 일부와 하이트진로의 후원금을 모아 마련한다. /원주=이종복 기자

## 홍차문화의 모든 것... 전은 JB문화공간 ‘홍차 티 클래스’ 성료

### 차후 반려견 특강 등 진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은행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이 진행한 ‘제2회 홍차티클래스’ 프로그램이 성료했다고 27일 밝혔다.

JB문화공간에서 회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개강한 ‘제2회 홍차 티 클래스’는 이날 25일에 12주 과정을 마무리했다.

원광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 과재명 교수의 지도 아래 박희선 강사의 진행으로 ‘홍차의 개념과 역사’, ‘여러 나라의 홍차문화’, ‘티 테이블 세팅 및 골든룰 우리기’ 등의 내용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JB문화공간 담당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실시한 이번 ‘홍차 티 클래스’ 프로그램이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아 심화과정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JB문화공간에서는 차후 ‘수의사 설계현 교수’의 반려견 특강, ‘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은행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이 진행한 제2회 홍차티클래스 프로그램이 성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예술 여행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JB문화공간의 회원 가입 및 프로그램과 대관 신청은 홈페이지(www.jbcenter.or.kr)와 JB문화공간 담당자(063-288-7797)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JB문화공간 회원들에게는 등호회 대관시 우대 혜택,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및 강연, 공연에 무료 및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JB카페 50%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영태 기자



신협중앙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주최한 제2회 전국 초등학생 서민금융 글짓기 대회 시상식이 27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성료됐다.

## ‘내개 돈이란 어떤 존재일까?’

### 신협-서금원, 초등생 서민금융 글짓기 대회 온라인 개최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와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 이하 서금원)이 주최한 ‘제2회 전국 초등학생 서민금융 글짓기 대회 시상식’이 27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성료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시상식에는 신협중앙회 김경주 행복나눔부부장·서민금융진흥원 이효근 부원장·어린이조선일보 학교교도 대표이사 등 최소인원만 참석했으며, 수상자들은 전원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했다. 시상식은 신협·서금원·어린이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진희어나 운서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날 온라인 시상식은 특별상인 5등시 우수작을 온라인 참석자들과 함께 읽으며 비대면이지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상식으로 꾸렸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의 건전한 금융 의식 계고를 위해 마련됐다. 대회 주제는 ▲내개 돈이란 어떤 존재? 돈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 ▲나의 특급 용돈 관리 비법 ▲코로나 시대의 우리 가족 경제 ▲슬기로운 저축 생활, 20년 후 나의 모습 등 4가지로 이중 하나를 신문 또는 운문 형식으로 제출한 작품을 접수 받았다. 또한, 올해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포어부문을 통해 어린이들의 불법사금융 예방의식을 높였으며,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7주간 진행 총 1647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수상은 금융·경제 관련 경험 및 실천의지,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3명)·금상(6명)·은상(9명)·동상(12명)·입선(45명) 등 75편의 개인 작품과 단체참여도 및 입상자 비율 등 별도 평가를 통해 지도교사상(2명)과 단체상(1개교) 등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평생어, 부바, 포용이,미소 5등시 우수작 20편에도 특별상을 수여했다.

심사위원은 유성호 문학평론가, 김중광 소설가, 강민경 아동문학가, 김재홍 시인, 조재성 교사, 이소진 교사 등 총 8명의 전문심사위원이 참여했다.

대상은 자신의 꿈인 수의사를 위해 열심히 저축을 실천한 사문서양(동덕초등학교 5학년)과 ‘돈보다 소중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희망을 보여준 이다연 양(화도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저축을 씨앗을 심는 것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한 한소윤 양(신북초등학교 1학년)이 수상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잘 풀어낸 학생들의 글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참 대견하고 흐뭇했다”며 “신협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금융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어부바 멘토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후 이번 대회 수상작은 신협과 서금원, 어린이조선일보 지면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영태 기자

## 작년 도내 출생아 수 전년비 800명 감소

### 임실 1.75명으로 전국 3위·순창 1.66명 전국 5위

전북지역 출생아수가 1년 전보다 800명 넘게 감소했다. 전북은 1만명대가 무너졌다.

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2020년 호남·제주 출생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출생아는 8165명으로 지난 2019년 대비 9%가 감소했으며 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인 조(粗)출생률은 4.5명 같은 기간 0.4명이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91명으로 2019년 대비 0.09명이 감소했다.

도내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위이며 도내에선 임실군이 1.75명으로 전국 시·군·구 3위, 순창군은 1.66명으로 전국 5위로 올랐다.

지난해 전북의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86세로 1년 전보다 0.23세가 늘었고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은 31.3%로 조사됐다.

또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비중은 30~34세가 40.5%로 가장 높고 35세~39세는 26.1%, 25세~29세는 22.3%, 24세 이하 5.8%, 40세 이상은 5.2%로 집계됐다.

전북의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결혼

생활 기간은 21년이며 63.2%가 결혼 2년 미만에서 첫 출산을 하고, 여아 100명당 남아수인 출생성비는 102.7명으로 조사됐다.

/이영태 기자